

금속가공업체 · 소상공 공동장비 구축

전주시 · 벤처촉진지구, 인프라 지원실 개소... 기술력 키워 일자리 창출 기대

전주지역 소규모 금속가공 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가 구축됐다.

전주시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위원장 양균의, 이하 전주벤처촉진지구)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3차원측정기와 레이저용접기, 머시닝센터 등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종의 장비를 갖춘 공동인프라 지원실을 마련하고,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소공인을 위한 공동장비와 작업 공간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주지역 금속가공 소공인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값비싼 장비 구축에 따른 고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활용

을 통해 소공인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성,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인프라 지원실은 시와 전주벤처촉진지구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소공인공동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마련한 것으로, 구축된 장비는 지역 내 10인 미만 금속가공 관련기업이면 전문장비 오피세터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이 기술력과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금속가공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값비싼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이용시설 구축에 힘써왔다.

양균의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은 이날 "기업육성 경험을 토대로 벤처촉진지구 및 주변에 형성된 금속가공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전주시 특화산업의 든든한 기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공동인프라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

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장비인프라 구축으로 소공인업체들 간 공동제품 개발을 통한 협업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출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주금속가공소공인센터는 지역 내 금속가공 소공인 24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컨설팅, 환경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장비인프라 이용 등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jvad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19-034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특성화고 직업교육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 전주생명과학고 시청각실에서 특성화고 교장, 교감, 전문교육부장 및 취업부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특성화고 직업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직업교육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을 보면 먼저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 고교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해 직업기초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강화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인 삼례공고, 전주공고, 진안공고 등 3개교에 30억원을 지원하며 전주공고 등 15개 특성화고교에는 6억원을 지원해 산학관 명장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 군산기계공고에 10억원, 한국경마축산고 9억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에 23억원 등 총 43억원을 지원한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오는 3월에 개교하며 군산기계공고는 올해부터 조선산업설비과와 선박전기과를 폐교하는 대신 기계과와 전기시스템 제어과로 개편했고 전북기계공고는 메가트로닉스과를 신설했다.

일반고 3학년 중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V 대학,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협력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2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해는 44개 학교 175명이 수료했다.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원광보건대학 등 3개 전문대학과 협력해 직업교육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한옥 건축 우수성 미국에 알리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뉴욕서 한옥 · 한국문화 관련 전시회 열어 '성황'

국내 한옥 교육의 메카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옥의 우수성을 미국에 널리 알리는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대 건축공학과와 신한류사업단 학생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등지에서 한옥 전시회를 가졌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초청으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화암사 극락전을 5분의 1 모형으로 만들고 그동안 전북대 고창캠퍼스 수업을 통해 만들었던 공포 모형, 한옥 및 한국문화와 관련한 패널, 사진, 한옥 관련 도구 등을 전시했다.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한옥 레고 키트를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옥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전시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장을 비롯 학부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들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간 틈틈이 학생들을 찾아 한옥 모형 등을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한옥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전시장의 큐레이터는 "학교 전시실이 생긴 이래 가장 훌륭한 전시회였다"고 평할 만큼 호평을 받았다. 전시에는 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전북대 건축공학과와 신한류사업단 학생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등지에서 한옥 전시회를 가졌다.

일반인들도 매일같이 줄을 이어 관람했고 특히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맞춤과 이음으로 집 한 채를 만드는 한옥 기술에 대해 감탄했다.

단장을 맡은 남해경 교수(건축공학)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가치는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만든 것들을 활용해 한옥의 우수성을 미국인들에게 알렸다는 점이다"며

"앞으로 전시를 확대해 세계 곳곳에 알리고 한옥을 수출하는 방법도 강구해 한옥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고3 진학부장 · 담임교사 대상 대입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개최

고3 진학부장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입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가 오는 오후 전주대 예술관 J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2018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에 따른 심층 연수로 도내 고교 진학부장 및 고3 예비담임 전원이 참석한다.

연수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전형 특성을 안내하고 수시·정시 지원전략, 전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사례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교 진학부장과 고3 담임교사 대상 진학지도 연수는 이날 연수를 포함해 7월 2차례, 12월 2차례 등 올해 총 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7월에는 수시전형 지원전략과 면접 및 방과후 학교 논술전형 대비 방안 등을 협의하고 12월에는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후 정시전형 지원전략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